

발전을 위한 협동



<본협회회장> 홍 신 영

이제 오곡이 무트익고 하늘이 한결 높아지는 가을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이며 수확의 계절을 맞아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께서도 지극정성들여 가꾸신 보람을 한아름 풍성히 거두어 드리실 때인줄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한사람의 역군으로서 쌓여진 결실의 훈덕을 바라보며 대한간호협회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실로 느끼는 바 감회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전 50여명 밖에 안되는 적은 수의 선구적간호원들이 뜻을 함께 해서 조선간호원협회를 창설했던 당시, 아니 그보다 더 거슬러 60여년전 최초의 선교간호원들이 우리나라의 간호사업을 시작할 때 형편은 여자들이 문밖 출입도 임의로 못하던 때였으니 가족아닌 다른 사람의 간호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봉건적 사상이 뿌리 깊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 후 개화의 영향으로 좀 나아지었다지만 식민지 풍토가 성스린 간호봉사를 천시해왔으므로 우리 간호활동에는 오히려 더 큰 장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더전에 뿌러진 씨앗이 전전한 보복으로 자라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수분과 영양의 공급도 별로 없었으며 재배 기술 또한 미숙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연원이던 해방을 맞게 되고 간호활동도 본체도를 갖게 되었으나 등란을 겪은 후에야 겨우 '가지를 펴게 되어 최대한의 성장을 위해 우리 간호원은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보람으로 여러가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리한 조건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죽내는 돌튼 국제적

으로도 크게 인식될만큼 자랐고, 앞으로도 계속 자랄 것입니다.

바야흐로 국민보건향상에 대한 관심은 범세계적 조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추세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고무적으로 국민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제반과제를, 각자의 의무를 인식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들어보면

첫째, 국내적으로 수요되는 간호원의 증족문제와

둘째, 간호원의 매우 개선문제,

셋째, 간호학교 증설과 간호학생 정원, 간호보조원 양성문제 등입니다.

이와같이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는 동분서주하며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또 일부는 해결을 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본적 문제의 해결에는 숏한 난관과 요원한 거리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퇴원전후 계획도 내년에 편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무겁고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좀 더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시키며 또 우리 회원

들에게 많은 의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퇴원을 설립함으로써 좀 더 우리 회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홍신영>

그러나 이런 것은 회장이나 어떤 특정인의 머리카 수완으로 해결되거나 처리되길 바랄 것이 아니라 회원 전체의 좋은 생각과 방법을 총화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며 간호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줄 압니다.

발전을 위한 '협동'이 필요한 이때 우리는 현재 6,000명도 못되는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회원의 자격을 얻지 못하신 분들의 이유가 무엇 이던지 그 책임은 우리 회원 전부에 게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퇴원 가꾸고 육성시키며 발전을 꾀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각도 지부에서는 물론 회원 여러분께서도 퇴원 건립과 회원등록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각 개개인의 노력이 우리 사업을 강하고 더욱 능률적으로 진행되게끔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